

## 시민의 힘으로 지식강국 만든다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지식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사무처장 이용훈씨



이용훈씨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지식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 사무처장 이용훈씨(42). 그는 요즘 여기저기 연락하느라 바쁘다. 국민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이 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다.

“국민운동의 문은 모든 시민단체와 개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식정보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민운동의 취지와 목표

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문화개혁시민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등 5개 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운동은 올바른 지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지난 2월 26일 국민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지금까지 출판계·학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인사 120여명이 동참했다.

“지금까지 출판계와 학계, 도서관계가 산발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한계가 많아 자연스럽게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함께 모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결집하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각 단체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시민운동의 반성도 들어 있습니다.”

국민운동은 도서관 콘텐츠 예산 증액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점차 도서관 운영 시스템 개혁, 출판시장 구조와 유통 합리화, 국민의 입을 권리 확보 등의 목표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전국민적으로 확산시켜 올바른 지식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좋은 독서환경에서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권리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씨는 구체적으로 도서관 콘텐츠 실태조사와 백서발간,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관련 법 개정 운동, 각종 토론회와 연구회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불거졌던 도서관정가제 논란은 출판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로 인해 출판시장이 위기에 빠진다면, 그것은 도서관의 위기인 동시에 국가 전체의 위기죠. 도서관 콘텐츠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운동은 오는 4월 14일 <도서관 장서의 현실과 향후 대책>(가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 초에 발대식을 치를 예정이다. - 김정은 기자

## 《근대 계몽기 시가 자료집(전3권)》 출간돼

근대 초기 사회상과 생활풍속 알려주는 시가들 엮어

《근대 계몽기 시가 자료집(전3권)》(강명관·고미숙 엮음)이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시가와 《대한민보》에 실린 시조를 한데 묶어 주석을 붙였다.

근대계몽기는 19세기 말에서 1910년 한일병탄까지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근대를 태동시킨 전환기를 이른다. 《대한매일신보》는 이 시기 계몽담론을 주도했던 핵심매체로, 대중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시장르를 광범하게 변용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초기에는 잡가의 형태를 변용한 노래, 판소리의 유명한 대목을 활용한 노래, 전통가사형과 서구의 창가형 노래가 주류를 이루다가, 1908년 이후 새로운 장르인 계몽가사를 만들어냈다. 4음보를 기저로 하되 분절된 연들이 7~12연 정도로 이어져 있고, 후렴구 비슷한 반복구가 붙어 있는 계몽가사는 계몽기의 역동적인 인정물태를 그려냈다.

이 자료집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인용돼 왔던 시가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가형태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편저자인 고미숙씨는 “특히 계몽가사에는 당시 매국노들의 구체적인 친일행각, 사회전반에서 일어난 변화의 조짐, 기생·상궁·의병 집단의 처지 등 전환기적 풍속이 다양하게 녹아 있다”면서 “이 자료집은 한국 근대성의 기원부터 20세기 초 풍속사까지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역사자료집이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기자

